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2. 10.(화) 배포 시 배포 2026. 2. 10.(화)

먹거리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주요 김치재료인 배추, 무는 전년비 각각 8.6%, 33.5% 낮은 수준 -

〈 주요 보도내용 〉

2월 10일(화) 세계일보 ‘‘물가 2%대’ 안정세라는데... 취약층 주 식재료는 껑충’ 기사에서 ‘물가가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치속재료 등 취약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식재료는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해당기사는 ’25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자료를 토대로 ’24년 대비 ’25년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내용이며, 현재 농산물 가격 동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한파 등 기상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CPI('26.1) : 전년동월비 전체 2.0%↑, 농산물 0.9%↑(채소류 6.6%↓)

해당 기사에서 제시한 배추, 무 가격(2월 상순)은 전년 대비 각각 8.6%, 33.5% 낮은 수준이고, 마늘은 전년비 2.0% 높은 수준이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이외 겨울철 잦은 수급 불안이 있었던 당근, 양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년비 상승률(2월 상순): 당근 47.3%↓, 양배추 44.6%↓, 양파 19.1%↓

쌀은 20kg당 62,0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크므로 재고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정부 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을 정상가격의 60~9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상가격 : 31,060원/10kg, 할인가격 : 2,500~10,000원/10kg

또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 완화와 식생활 안정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식품 바우처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 ('25)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18세 이하 포함 가구 → ('26)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
  기간 : ('25) 10개월(3~12월) → ('26) 12개월 연중 지원

아울러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매주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 등을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품목 결정 등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농산물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